

EDU-04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1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1. 신용·대출·금리·부채 총비용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?

- ☐ A. 필요금액과 목적을 먼저 줄인다.
- ☐ B.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
- ☐ C.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
- ☐ D.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

2.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?

- ☐ A. 현재 보이는 금액만
- ☐ B. 비용·위험·기한·보호·증거
- ☐ C. 광고 순위와 후기 수
- ☐ D. 친구가 선택한 상품

3.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?

- ☐ A. 기억해 둔다.
- ☐ B.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
- ☐ C. 계약서·설명·거래·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.
- ☐ D.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

4.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?

- ☐ A.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
- ☐ B.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
- ☐ C. 신청·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.
- ☐ D.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

5.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?

- ☐ A. 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
- ☐ B.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
- ☐ C.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·기한·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.
- ☐ D.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

EDU-04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2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6. 사례 '고정과 변동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상승 시나리오와 고정금리 총비용을 함께 비교한다.
- ☐ B. 오늘 금리만 보고 선택한다.
- ☐ C. 은행 직원의 말만 기억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7. 사례 '만기일시의 착시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만기 원금 마련 방법과 총이자를 적는다.
- ☐ B. 월 납부액만 비교한다.
- ☐ C. 만기 때 새 대출로 갚기로 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8. 사례 '카드론 돌려막기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모든 채무와 필수생활비를 적고 즉시 상담한다.
- ☐ B. 한도를 더 늘린다.
- ☐ C. 연락을 피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9. 사례 '가족 보증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보증 범위·최고액·기간과 대신 갚을 최악의 경우를 확인한다.
- ☐ B. 가족이므로 서명한다.
- ☐ C. 서류를 읽지 않고 인감만 준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10. 사례 '소득 감소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연체 전에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상담한다.
- ☐ B. 독촉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.
- ☐ C. 불법 대출 광고에 연락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EDU-04 정답과 해설 · 3/3

문항별 정답과 선택지 해설

1. 정답 A

- A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필요금액과 목적을 먼저 줄인다.
- B. 이 선택은 '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필요금액과 목적을 먼저 줄인다.
- C. 이 선택은 '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필요금액과 목적을 먼저 줄인다.
- D. 이 선택은 '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필요금액과 목적을 먼저 줄인다.

2. 정답 B

- A. 이 선택은 '현재 보이는 금액만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B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C. 이 선택은 '광고 순위와 후기 수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D. 이 선택은 '친구가 선택한 상품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
3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기억해 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B. 이 선택은 '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C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D. 이 선택은 '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
4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C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D. 이 선택은 '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
5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
- B. 이 선택은 '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C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D. 이 선택은 '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
6. 정답 A

- A. 감당 가능한 변동폭을 먼저 정한다. 미래 금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버틸 수 있는지 본다.
- B. 이 선택은 '오늘 금리만 보고 선택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감당 가능한 변동폭을 먼저 정한다. 미래 금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버틸 수 있는지 본다.
- C. 이 선택은 '은행 직원의 말만 기억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감당 가능한 변동폭을 먼저 정한다. 미래 금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버틸 수 있는지 본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감당 가능한 변동폭을 먼저 정한다. 미래 금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버틸 수 있는지 본다.

7. 정답 A

- A. 마지막 원금까지 상환계획에 넣는다. 차환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.
- B. 이 선택은 '월 납부액만 비교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마지막 원금까지 상환계획에 넣는다. 차환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.
- C. 이 선택은 '만기 때 새 대출로 갚기로 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마지막 원금까지 상환계획에 넣는다. 차환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마지막 원금까지 상환계획에 넣는다. 차환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.

8. 정답 A

- A. 연체 전 상담이 선택지를 넓힌다. 새 빚으로 상환일만 미루면 총비용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- B. 이 선택은 '한도를 더 늘린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연체 전 상담이 선택지를 넓힌다. 새 빚으로 상환일만 미루면 총비용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- C. 이 선택은 '연락을 피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연체 전 상담이 선택지를 넓힌다. 새 빚으로 상환일만 미루면 총비용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연체 전 상담이 선택지를 넓힌다. 새 빚으로 상환일만 미루면 총비용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
9. 정답 A

- A. 보증도 내 부채로 계산한다. 주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지면 보증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.
- B. 이 선택은 '가족이므로 서명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보증도 내 부채로 계산한다. 주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지면 보증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.
- C. 이 선택은 '서류를 읽지 않고 인감만 준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보증도 내 부채로 계산한다. 주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지면 보증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보증도 내 부채로 계산한다. 주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지면 보증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.

10. 정답 A

- A. 예상되는 곤란도 미리 알린다. 계약·잔액·소득·필수비용 기록을 준비하면 상담이 정확해진다.

- B. 이 선택은 '독촉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예상되는 곤란도 미리 알린다. 계약·잔액·소득·필수비용 기록을 준비하면 상담이 정확해진다.
- C. 이 선택은 '불법 대출 광고에 연락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예상되는 곤란도 미리 알린다. 계약·잔액·소득·필수비용 기록을 준비하면 상담이 정확해진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예상되는 곤란도 미리 알린다. 계약·잔액·소득·필수비용 기록을 준비하면 상담이 정확해진다.